

# 전북문화 지킴이 역할 '톡톡'

### 도 문화관광국, 문체부 공모 통해 국비 61.8억원 확보 주민밀착형 문화시설 등 다양한 분야 발전 기반 마련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국장 윤동욱)은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응모하여 6개 사업이 선정, 총 61.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6개 사업은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사업에 18.6억원, 문화기술연구개발 사업에 28억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3차)에 1.4억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사업에 4.2억원,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에 7.3억원,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사업에 2.3억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일환으로 실시한 '지방문화원 시설 지원사업'은 정읍문화원 신축(국비 10억원), 익산문화원 증축(국비 6.6억원), 전주문화원 보수(리모델링)(국비 2억원) 3가지 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향토문화 및 지역문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온 지방문화원이 지역민의 문화 욕구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공모신청된 문화기술연구개발 사업은 '생체친화 기반 인터랙티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으로, 전자 부품연구원이 주관기관, 재단법인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이 참여기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실내 문화체험공간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가 증가하는 현재, 매체예술(미디어아트)이나 증강현실(AR) 등 생방향(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적용한 고품격 실감문화 서비스 도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 환경 및 시설물을 개선하여 지역의 생활문화나 축제 등을 수용하는 다목적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체육진흥추진위원회 발령종목(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을 제외한 비육성 체육종목 실업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 선정으로 도내 총 36개팀의 선수 육성 및 저변 확대가 기대된다.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 센터사업'은 생활체육의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해 연령대별 건강체력 수준을 주 기적으로 측정하여 맞춤형 운동처방을 해주는 사업으로, 금번 공모선정을 통해 군산이 신규 지정을 받게 되었다.

전북도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원, 작은도서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로서, 금번 공모 선정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한발짝 더 다가갈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놀이체험시설 확충으로 새로운 여가생활의 장이 펼쳐지고, 다양한 체육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탄탄한 체육 기반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 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할 것임을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 고부가 탄소산업 · 스마트 수송기기 혁신성장 기반 구축

### 전북도, 스마트특성화 공모 2개 사업 선정 '쾌거' ... 총 172억 투입

전북도는 2020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과 ICT 융합형 스마트 수송기기 생태계 구축사업에 응모해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 신규 세부 사업으로, 지역에 기 구축된 혁신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다각화 등 추진을 통한 기업의 혁신활동 촉진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성장 정책 사업이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2020년부터 3년

간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에 85.7억원, ICT 융합형 스마트 수송기기(지동차, 조선, 건설기계) 생태계 구축에 86억원 등 총 172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탄소융복합 소재부품산업 고도화 기반구축사업은 탄소밸리 구축사업 기구축 정비 22종을 업그레이드하여 소재부터 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시험분석/신뢰성평가 지원 등) 등을 통해 탄소융복합 제품 시장을 해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ICT 융합형 스마트수송기기 생태계

구축사업은 참여기관 간 장비 데이터베이스 및 보유장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비활용 기업 지원(장비성능개선, 시험평가지원 등)과 장비운영 인력양성을 통해 수송기기 산업의 스마트한 생산환경을 구축해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 품목확대 지원으로 수송기기 산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 주관기관인 탄소융합기술원 및 자동차융합기술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처 수용성, 사업효과성 등에 중점을 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발표평가 및 심사 등에도 적극 대응하여 2개 사업 모두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김진성 기자

# 전북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호남통계청 전주사무소는 2일 '2019년 4월 전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50 전월 대비 0.3%, 전년동월대비 0.7%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지수'는 농축수산물물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2.4% 각각 상승, 공업제품은 전월대비 0.7% 상승, 전년동월대비 0.4% 하락,

서비스는 전월대비 0.0% 보합,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0.6% 각각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0.6% 각각 상승했다.

/김영태 기자



ASEAN+3 재무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피지 나디 셰라톤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전북농기원, 병해충 발생정보 5호 발표... 농작물 관리 유의 당부

전북농업기술원에서는 과수 갈색날개매미충, 맥류 붉은곰팡이병, 모마름병 등 버 못자리 병해충, 시설작물 주요 병해충 등 5월 중 발생하는 병해충을 중심으로 제5호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고 병해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갈색날개매미충은 2011년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전북 전 시군으로 확산되었고, 올해는 4월중 기온이 낮아 최초 부화시기가 전년보다 늦어져 방제적기는 보통 부화가 50~80% 진행된 시기로 지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5월 하순으로 전망된다.

특히 갈색날개매미충은 농경지와 산림을 오가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과원 뿐만 아니라 인접 산림지역까지 함께 일시에 방제해야 효율적으로 밀도를

줄일 수 있다. 맥류 붉은곰팡이병은 이삭이 패는 4월 중하순부터 알곡이 차기 시작하는 5월 중순에 평균기온 18~20℃, 강우가 3일 이상 계속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병 예방을 위해 비 예보가 있으면 맥류에 등록된 약제를 뿌려주어야 한다.

벼농사의 경우 본격적인 모내기철이 도래함에 따라 모마름병, 뚝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양전 육묘상자에 약제를 처리하여 애벌레, 벼물바구미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애벌레는 줄무늬잎마름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으로 5~6월경 중국에서 기류를 타고 날라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예찰을 철저히 하고 발생 초기에 방제해야 한다.

시설 및 노지 채소류의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서 총채벌레, 응애 등 해충의 발생이 많아질 수 있으며 이들 해충은 각종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충 역할을 하므로 밀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작물을 철저히 살펴 발견 즉시 방제하는 것이 좋다.

과수 화상병과 지두 곰보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병에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항상 과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즉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시기별 주요 병해충에 대한 지속적인 정밀예찰과 현장기술 지원을 통해 수시로 방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정보를 잘 숙지하여 병해충 발생 시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 위해 최선을"

### 전북경찰청, 어린이교통안전대책 중점 추진... 사고 27% 감소

전북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실시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결과 전년보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올해 신학기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44건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스쿨존 사고는 75% 감소했으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스쿨존

등·하굣길에 경찰인원을 배치해 교통안전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또한, 신호·속도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 2,860건을 적발했다.

더불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을 병행하고, 어린이 이동로 안전환경을 구축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1,011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했

으며, 스쿨존 교통시설 개선이 필요한 918개소를 발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은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과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핵심인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